전날부터 계속된 눈으로 10일 오전 광주시 동구 소태 나들목~화순 너릿재 구간에 진입한 차량들이 5㎞ 이상 늘어서 있다. 이 구간은 출근길에 2시간 이상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 가는데 2시간 '교통대란'

〈소태 IC~ 너릿재〉

광주·전남 최고 8.2㎝ 봄눈… 교통·낙상사고 잇따라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오후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최고 8.2㎝에 이르는 눈이 내려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항공기가 결항되는 등 교통 불편이 이어졌다. 또 10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가 얼어붙어 교통사고와 낙상사고가 잇따랐다.

◇교통 불편=평소 15분가량 걸리는 소태IC~화순 너릿재~화순읍 구간의 경우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광주·전남 주요 고갯길에서 출근길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또 활주로가 얼어붙으면서 10일 오전 7시15분 광주에서 김포로 출발할 예정이던 아시아나 OZ 8702편이 결항되는 등 광주와 김포를 오가는 항공기 3편과 광주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1편이 결항됐다.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목포와 여수, 완도에서 전남지역 주요 섬을 오가는 37개 항로, 54척의 선박 운항이 통제됐다.

◇교통·낙상사고=이날 오전 8시40분께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광주~목포 구간 4차선 도로에서 박모(60·목포시 삼학동)씨가 몰던 '전남70누31××호' 승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씨와 차에 타고 있던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오전 6시1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청아 맨션 인근 도로에서도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길을 가던 나모(여·62)씨를 치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새벽 시간대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 단지나 골목에서는 노약자들의 낙상사고가 이어졌다. 이날 새벽 5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미라보 아파트에서 강모(여·68)씨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더딘 제설작업, 항의 빗발=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9일 밤 눈이 내리자 10일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제설차량 61대, 인원 123명을 동원해 시내 주요 간선도로 등 257개 노선 382㎞에 대한 제설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서는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오르막길에서 승용차와 시내버스 등이 미끄러지는 아찔한 순간이 오전 내내 계속됐다. 또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이 들쑥날쑥하면서 이용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회사원 이모(25)씨는 "서구 금호동에서 시내버스를 탔는데 오르막길에서 아예 버스가 멈춰서 30분간 버스 안에 있었다"며 "버스 배차 간격도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졌다"고 주장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하 35도 찬공기 덩어리 급습 남쪽 수증기와 충돌

■ 때 아닌 3월 폭설 왜?

철 잊은 봄눈이 10일 광주·전남을 하얗게 뒤덮었다. 왜 3월 중순에 갑자기 많은 양의 눈이 내렸을까.

광주지방기상청은 3월치고는 비교적 많은 양의 눈이 내린 원인을 대기 불안정에서 찾고 있다. 북쪽 대륙에서 들어온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쪽 공기와 부딪치면서 눈구름을 발달시켰다는 것이다. 따뜻한 만큼 많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남쪽 공기가 영하 35도에 이르는 차가운 공기 덩어리와 만나면서 하룻밤 사이 많은 양의 눈을 내리게 했다는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한편 11일 광주·전남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9~12도로 전날보다 높겠다.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고흥·장흥·완도 미역양식장

수십억 너울 피해

전남도 재해보상 요청

이달 초에 예기치 않은 너울로 전남 장흥, 완도 등지의 미역양식장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어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다.

10일 전남지역 미역 양식어민들에 따르면 만조가 겹친 지난 1~3일 새벽 장흥을 비롯한 남해안 연안에 빠른 유속과 50㎝높이 이상의 너울이 닥쳐 수백ha에 이르는 미역시설물이 파손되고 수확을 앞둔 미역 농사를 망쳐 수십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현재 전남도의 양식 시설물 피해집계 결과 피해 상황은 ▲고흥 45어가(3억6천500만원) ▲장흥 40어가(3억200만원) ▲완도 161어가(8억7천800만원) 등 246어가 15억원에 달하고 추가 피해가 5~10%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규모를 보면 고흥은 김 1천32책·미역 641줄, 장흥은 미역 2천80줄, 완도는 김 2천466책·미역 1천285줄·다시마 105줄·톳 211줄 등이다.

장흥연안의 경우 미역양식 주생산지인 회진면 노력, 대리, 덕산, 장산 등 210여 어가 7개 어촌계 관할 170ha 미역양식장 시설물이 파괴돼 수확을 앞둔 1만5천t의 미역 양식물(8억2천여만원 상당)이 피해를 입었다.

황점수(43) 장흥군 회진면 덕산어촌계장은 "올해는 어느해 보다도 미역 작황이 좋아 대풍작을 기대했는데 하루아침에 미역농사를 망쳤다"며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보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군은 미역 양식장의 피해사태는 최근 남미 칠레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일본 연안에 발생한 1.2m 이상의 너울현상이 우리나라 연안에 미쳤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재난피해'로 간주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피해발생을 보고했다.

전남도는 유관기관의 합동조사를 거쳐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농림부 승인을 받으면 6월께 보상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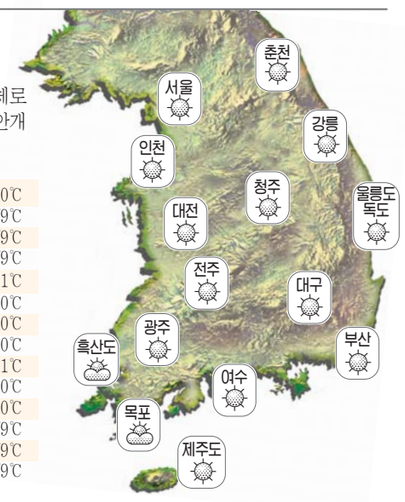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50분 해짐 18시 36분 / 달뜸 04시 08분 달짐 14시 27분

안전운전 하세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으며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광 주	구름 조금	-4/10℃
목 포	구름 많음	-2/9℃
여 수	구름 조금	-1/9℃
완 도	구름 조금	-3/9℃
구 례	구름 많음	-5/11℃
해 남	구름 조금	-6/10℃
장 흥	구름 조금	-6/10℃
고 흥	구름 조금	-4/10℃
순 천	구름 조금	-3/11℃
영 광	구름 조금	-6/10℃
진 도	구름 조금	-5/10℃
전 주	구름 조금	-5/9℃
남 원	구름 조금	-8/9℃
흑산도	구름 많음	0/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먼바다	남서~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5~2.5m
먼바다	남서~서	2.0~3.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보통	관심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5~2.5m
먼바다	남서~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먼바다	남서~서	1.5~2.5m

	밀물	썰물
목포	11:57 23:57	04:35 17:27
여수	07:03 19:05	00:26 13:1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날 씨						
최저/최고	4/15	6/16	6/16	8/12	5/9	1/11

농산어촌 전원학교 300곳으로

교과부, 10~20억 지원 자연친화 환경 개선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중인 전원학교가 2012년까지 300곳으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원학교를 현재 110곳에서 2012년까지 3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원학교는 자연친화적 환경과 이러닝 첨단시설을 바탕으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래형 학교로, 지난해 7월 도입돼 면(面) 지역 초등학교 77곳과 중학교 33곳이 지정돼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담양 고서초 등 초등학교 9곳과 순천 별량중 등 중학교 7곳 등 모두 16곳이 전원학교로 지정됐다.

교과부는 통폐합된 본교나 초·중 통합운영 학교로 전환하는 학교 중 면 지역에 소재하고 학생수가 61~200명인 190개교(초등 133곳, 중학교 57곳)를 2012년까지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육청 심사 및 추천, 교과부 심사 등을 거쳐 5월께 최종적으로 전원학교를 지정한다. 전원학교로 선정되면 10억~20억원이 지원돼 자연친화적 환경 개선(자연체험 운동장, 생태연못, 텃밭, 산책로 등), 첨단 이러닝 교실 설치(전자칠판, 디지털교과서, IPTV), 우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체험중심 교육과정, 영어·과학교육, 글쓰기·독서교육, 인성교육, 방과후 교육) 등에 사용된다.

또 지정 다음해부터 3년간 추가 사업비를 학교당 3천만원씩 지원해 학교급별, 또 학교급간 지역사회 연계·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에 쓰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학교에는 교장공모제 시행, 초빙교사 비율 확대, 인턴교사 배치, 자율학교 지정, 학생모집 자율권 부여, 순환보직제 개선, 교원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18 30주년 공연 이름 지어 주세요"

기념재단 공모

5·18기념재단(이사장 윤광장)은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의 공식명칭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기념공연은 매년 5월 기념주간(21~22일)에 펼쳐진다. 또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연극, 퍼포먼스 그리고 시대의 지성이 게스트로 참여하는 이야기콘서트 등이 5·18기념문화센터 및 기념공원일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공모기간은 26일까지이며, 수상자에게는 15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기념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행사 참여는 재단 홈페이지(www.518.org) 참여마당을 통해 하면 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동구 '응급시계' 사업

500명으로 대폭 확대

광주시 동구가 홀로 사는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위해 실시하는 '응급시계'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동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돼 만성 질환을 앓는 노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응급시계 사업의 대상자를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응급시계 사업은 홀로 사는 노인 등 응급치료가 필요한 관내 주민들에게 특수 제작된 시계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맥박에 이상이 생기면 곧바로 광주 응급의료센터와 소방서에 구조 요청이 들어가 환자는 신속하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동구는 사업 확대를 계기로 가볍고 휴대하기 쉬운 새로운 응급시계를 보급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응급시계 지킴이를 선발, 사용자들의 집에서 시계의 올바른 착용법을 지도하는 등 관리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응급시계는 최첨단기술과 지역의료 네트워크가 결합한 최고의 응급상황 시스템으로, 많은 노인이 혜택을 보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